

 <b>인천광역시</b>		<b>보도자료</b>		시민이 <b>행복</b> 한 세계 <b>초일류</b> 도시 <b>인천</b>
		배포일자	2023년 8월 1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행정팀장      조성훈 ☎440-2421</li> <li>• 담당자            이홍열 ☎440-2423</li> <li>• 자원봉사팀장    허정규 ☎440-2441</li> <li>• 담당자            김우표 ☎440-2443</li> </ul>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시민과 공무원도 수해 복구 힘 보태**

- 자원봉사자 및 공무원 400여 명, 전북 익산시 일원서 봉사활동 펼쳐 -  
 - 유정복 인천시장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기원 -

인천 시민과 공무원도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탤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00여 명의 인천시민과 인천시 공무원이 8월 1일부터 3일간 전북 익산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구호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침수피해, 하천 및 도로 파손, 주택침수, 산사태 등의 큰 피해를 입은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8월 1일부터 3일에 걸쳐 매일 12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급식차량 1대를 지원하고, 먹는물(350ml) 1만 병을 비롯해 장화, 장갑 등 3,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익산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투입된 급식차량이 3일 동안 매일 현장의 자원봉사자와 지역 주민 등 150인 분의 끼니를 책임진다.

시 및 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모집한 37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인천시 공무원 30여 명은 익산시 용안면 농가 등에서 파손된 비닐하우스 내 폐기 농작물·자재 등을 수거하고 농가 가옥 폐자재 수거 및 내부 정리 작업에 투입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익산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300만 인천 시민 모두와 함께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1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